

‘한국의 섬’ 지속 가능한 미래 모색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7일 한국해양대와 함께 ‘섬, 해양 우리의 대항해시대’라는 주제로 선상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제공>

한국섬진흥원 ‘섬의 날’ 맞아 오늘까지 학술대회·선상 아카데미 개최 관광·생태·문화 인프라 구축·세계 관광지와 네트워크 필요성 등 제언

정부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의 섬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생태·문화자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원 순환 시스템, 사물인터넷 등을 적용해 ‘스마트 아일랜드’로 조성하면서 세계의 유명한 섬 관광지와 네트워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전남은 유인도 272개소, 무인도 1893개소 등 2165개의 섬이 서남해안을 수놓고 있다.

한국섬진흥원(KIDI)이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9일까지 사흘간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에서 ‘제5회 한국섬포럼 국제학술대회’와 선상 아

카데미를 개최한다. ‘섬의 날’은 국민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 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됐다. 당초 ‘제4회 섬의 날’ 행사는 울릉도 일원에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취소하고 행사 일정 등을 축소·조정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의 섬, 지속 가능한 미래 대응 전략’ 기조발제에 나서 섬의 의미와 현실을 조명하며 미래 대응 전략 핵심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발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스마트 아일랜드 ▲뉴 글로벌 거버넌스 등 4가지를 꼽았다.

기조발제 후에는 에게해, 북유럽, 태평양 도서

국 사례 중심의 발제가 이어졌다. 미카일 토노글로 전주대 교수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반도국가 지역인 에게해 섬 사례를 들려 지속 가능한 섬 관광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9일까지 예정된 세션은 ▲섬 교통체계 기획세션 ▲신진·청년학자 세션 ▲울릉도 특별 기획세션 등이다.

지난 7일에는 ‘섬, 해양 우리의 대항해시대’라는 주제로 한국섬진흥원과 한국해양대가 ‘선상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도 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섬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섬은 국가 성장 동력이자 미래 자원으로, ‘섬의 날’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상기시키는 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섬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2023 찾아가고 싶은 여름X섬’과 ‘8월, 이달의 섬’으로 울릉도를 선정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기회발전특구’ 유치 본격화

추진단·실무전담팀 첫 회의…사전조사·연구용역 등 추진

광주시가 정부의 새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유치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동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특구추진단 첫 기획회의(워크숍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 정부 동향

과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구 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활동 등을 총괄하는 ‘추진단’과 이를 지원할 ‘실무전담팀(TF)’을 운영하고,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 중인 사전조사 지원사업에 광주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광주지역사업평가단을 참여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규제 특례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밝혔으며,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효율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기회발전특구 광주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10년째 민원 ‘광주 동물보호소’ 옮긴다

市, 주민 간담회…반려동물 복지시설 조성 후 이전 약속

소음과 악취 등 주민 민원이 이어지는 광주 동물보호소가 새로 조성되는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로 옮겨간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7일 오후 북구 건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집단 민원을 청취했다.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불편을 호소하며 동물보호소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건국동 주민자치회장과 통장단 회장 등은 소음·악취 등 해결책 마련, 동물보호소 이전 약속, 종합건설본부 쓰레기 아저씨 이전 등을 요구했다.

강 시장은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광역동물보호센터 건립 시 방음·환기 시설과 방음벽 등을 설치해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을 조성하면 보호소를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공공 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입양문화센터 등 복지지원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용역을 거쳐 내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전국 1위

대상 면적 14만8000ha 79%…자부담금 90% 지원 등 성과

올해 전남도내 농민들의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에 달했다.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전남도가 농가 자부담을 10% 포인트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올해 벼 가입 대상 면적 14만8000ha 중 11만7000ha가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 가입률 79%로, 전국 평균(61%)보다 18%나 높다. 지난해부터 전남도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 자부담을 20%에서 10% 낮췄다. 사업비만 685억6000만원을 투입했다.

사·도별로 전남 다음으로 전북 73%(8만3000ha), 충남 65%(8만7000ha), 경남 56%(3만6000ha), 경북 50%(4만7000ha), 충북 47%

(1만6000ha) 순이다.

보험 가입자는 태풍 등 피해는 물론 병해충 특약에 가입한 경우 원양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먹노린재 등 피해까지 보장받는다. 지난해 6만5000여 벼 재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으로 모두 543억원을 받아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 무안에서 벼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개인 부담 20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 후 태풍피해를 입어 부담금보다 90배 많은 1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 우박, 서리,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자치경찰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다음달 22일까지 안전시설·통학버스 등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이 방학과 이후 개학기에 대비해 9월 22일까지 7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실시한다. 8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추세이나, 올 들어서는 6월까지 14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3건)보다 늘었다.

이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개학 전인 방학 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대책 준비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어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교통안전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일제 정비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및 단속 ▲등학교 안전 지도 활동 강화 ▲홍보·교육을 통한 어린이 안전 문화

확산 등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자체와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호구역의 기·중점 노면 표시 도색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청·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통학버스 5101대의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동승 보호자 탑승의무 준수, 안전운행 기록 제출 여부 등 점검과 단속에도 나선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고 우려가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통학버스 앞지르기,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 후 서행 등을 계도할 예정이다.

조만간 전남자치경찰위원회장은 “개학기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 전형일: 2023. 10. 6(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9(금)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